

전남 서부권

■ 개통 한달 앞둔 목포대교 교통대책 급하다

교통량 폭증 불구 주변도로 개설 안돼 신호 연동 체계 구축·불법 주차 단속을

목포대교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통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교가 개통되면 예상 교통량이 1일 4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여기에 고하대로 주변에 연산 주공 3·4·5단지, 현대산업, 대송 에이스빌, 신안비치 1·2·3차, 신안비치 팔래스 1·2차 등 총 5400세대가 밀집돼 이들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만 대략 6000여 대에 달한다.

하지만 현 고하대로는 폭 35m에 편도 3차선에 불과해 이처럼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당초 목포시는 목포대교 개통에 대비해 신안 비치아파트, 북항 하수처리장, 세라믹 산업단지 주변 등 3개 구간에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길이 1.43km·폭 20m)를 조기 개설키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져 빨라야 2014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선 신호 연동 체계 구축과 갓길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신안비치 아파트 4거리~북항 구간과 전남 중앙병원~청솔학원 구간은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다.

개통 한 달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플래카드를 내



목포대교 개통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교통대책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인 고하대로.

걸고 목포시의 지속적인 지도·계몽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또 현 고하대로 구간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많은데다가 사거리 간 거리가 짧아 꼬리 물기 현상이 우려돼 비교적 규모가 작은 3개소는 사거리를 폐쇄해 좌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를 폐쇄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사전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포대교는 사장교로 외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돼 부산 광안대교에 버금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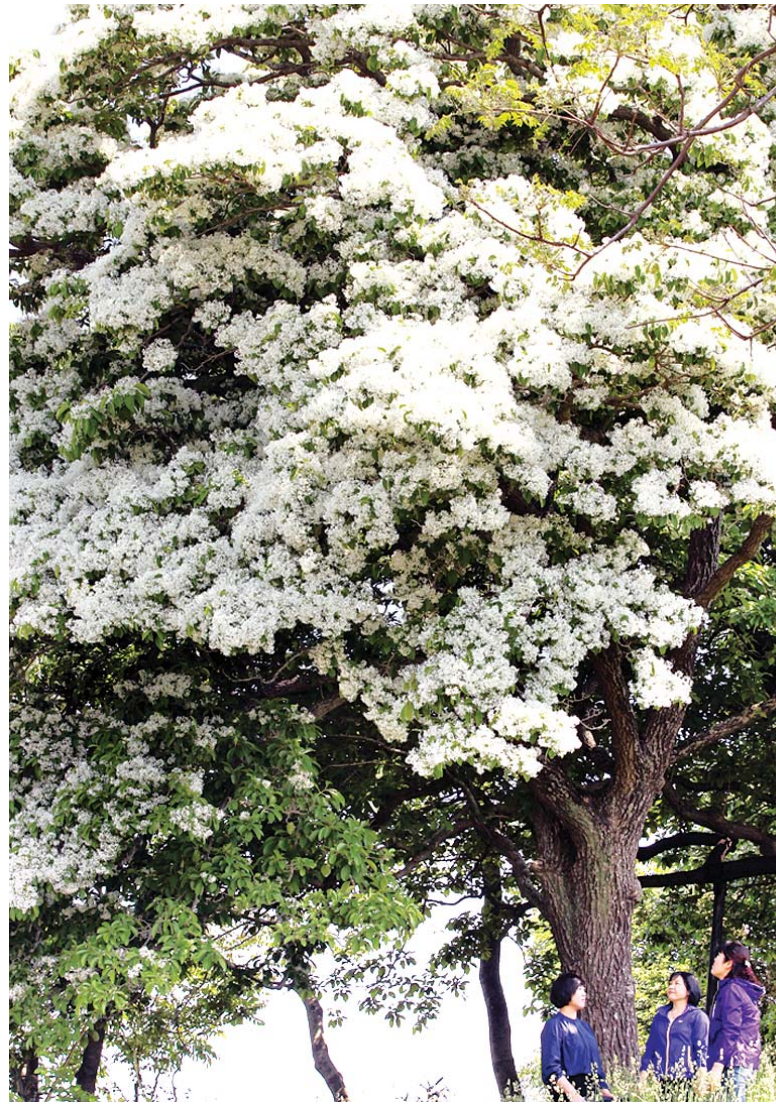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 이를 조망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고하대로에서 북항 방면은 경사가 3%에 달해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속도제한 장치와 겨울철 제설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갈리단 관계자는 “준공 후 유지 관리 사무소가 설치·운영돼 6명이 상주하도록 돼있어 제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제한 문제는 준공 후 목포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흐드러진 이팝나무

소만(小滿)인 지난 21일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 있는 이팝나무가 새하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팝나무는 하얀색 꽃이 흡사 흰 쌀밥을 담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든다는 유래를 갖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목포도축장 대양동 이전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9900㎡ 규모의 목포도축장이 오는 2014년까지 대양동으로 이전한다.

목포시는 “도축장 이전 예산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에 이어 최근 오성식품과 협약을 체결,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7542㎡ 규모의 목포 도축장은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군 등 서남권 지역민에게 축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 인근 옛 석현 산업단지가 2000년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이곳 거주 주민들이 도축장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초여름 별미 병어의 유혹

신안 위판장 미시가 몰려...내달 2일 '병어축제'

본격적인 병어 철을 맞아 국내 최대 병어 위판장인 신안군 지도읍 송도위판장에 병어를 맛보려는 미시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신안수협 북부지점에 따르면 병어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근까지 20마리 한 상자에 40만원에 팔리다 25만원선으로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4만원 높은 가격이다.

북부지점 남희현 판매과장은 “최근 병어 위판량이 400~500상자로 늘면서 40만원대의 병어 값이 20만원대로 하락했다”면서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이 찍 차기 이전인 지금 병어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신안에서는 매년 5~8월에 300여 어민이 병어를 잡아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지도읍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에서 ‘병어축제’를 개최한다.

“1004석이 전하는 천상의 맛, 은빛 미녀를 내 품에”란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병어 비빔밥 만들기, 시식회, 요리대회, 어업인 주요인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완도 '청해진 어린이 공원' 친환경 놀이터

환경부 우수공원 선정

완도군 죽청리 장보고 동상 일원에 조성된 '청해진 어린이 공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2012 친환경 안심 놀이터 공모전'에서 우수공원으로 선정됐다.

이전 공모전은 환경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친환경놀이터 만들기의 일

향으로 우수 친환경 놀이터를 발굴·홍보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걸쳐 진행됐다.

'청해진 어린이 공원'은 기존의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바다 재질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료검사에서 합격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 북

단신

'김제 지평선 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

김제 지평선축제 제2위원회는 6월 1일까지 '김제 지평선축제'의 공식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한다.

포스터 디자인은 '지평선 축제'의 주요테마인 지평선과 벽골제, 농경문화 체험행사 등의 특성을 이미지로 살려 글로벌 김제 지평

선 축제의 강한 매력이 한 눈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작품신청은 6월중순에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063-540-3034)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익산 모현대교 공사 내달 말 완료

익산시 모현대교 공사가 오는 6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현재 공정률이 75%로 6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모현대교 교통통제가 해제되고 호남고속도로의 익산역사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호남고속철도 신설에 따라 KTX가 익산역사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모현대교 교량부문 철거 및 신설공사를 착공, 교통 통제에 들어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시의회, 함양 마천면 명칭변경 중단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조영연)는 함양군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하는 함양군 읍·면·동 개정조례안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3개도 5개 시·군이 경계하고 있는 인접 자치단체의

공동의 유형 자산임에도 함양군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리산면'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지리산 천왕봉이 마천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입법예고중에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준공 공동 건의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8개 단체장은 2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오는 2015년 완공예정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준공을 공동 건의했다.

8개 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전남 담양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으로 88고속도로와 관련된 시·군이다. 건의서에는 2차선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공사기간을 단축해 조기완공할 것 등이 담겨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숙박업계 연일 객실 만원 여수 엑스포 효과 '톡톡'

남원시 숙박업계가 여수 엑스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 콘도, 캔싱턴 리조트 등 숙박업계가 여수엑스포가 시작된 이후 연일 객실이 만실 상태다. 지리산파크텔 등 시내권 밖에 있는 숙박시설까지 연일 예약이 완료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객실 이용률은 20~30%에 그쳤다.

남원 숙박업계가 이처럼 여수엑스포 특수를 누리는 것은 KTX 열차로 남원~여수간 1시간 거리의 지리적 인접이 있다.

또 여수엑스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람회 구역은 여수에서, 관광·휴양은 남원'

에서란 상품을 개발했다.

시는 여수 엑스포 기간 숙박할인 행사(최고 65%)를 하고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에게는 관광무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행사로 춘향테마파크에서 동헌재판 등 15개 프로그램으로 짜진 전통문화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관광무원에서는 신관사도 마당극 등 4회 국악 상설공연을 가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 쿠팡)를 통한 여행상품 판매도 관광객 모집에 주요하고 있다. 1200여 명의 관광객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예약을 마친 상태이며, 다음달 9일부터는 주중 상품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불우한 정극인 '상춘곡 무대' 되살리다

정읍시, 동진강변 칠보유원지 내 '상춘곡 테마동산' 조성

“속세에 물려 사는 사람들이여. 이 내 생활 어떠한가? 사람의 종류에 미치겠는가, 그렇지 못한가?...몇 칸 짜리 소박한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나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노라.”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賞春曲) 무대' 정읍에 재연됐다.

조선 전기 학자인 불우현 정극인(1401~1481) 선생은 1437년 귀양에서 풀려나 처가가 있는 태인현 고현(현 정읍시 칠보면)에 정착한 후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해 봄을 완성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노래인 '상춘곡'을 남겼다.

정읍시는 최근 칠보면 동진강변에

있는 칠보 물레마 유원지내에 '상춘곡 테마동산'을 조성했다.

시는 상춘곡에 등장하는 봄의 정령사인 진달래를 비롯해 복사꽃·살구꽃·버드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 주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 어우러지게 해 '상춘곡'의 배경이 된 시골풍경을 연출했다.

또 복사꽃잎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유상대의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도록 유상대 주변에 복사꽃나무를 심었고, 칠보 물레마 유원지를 찾는 상춘객이 굽이도는 물에 잔을 띄워 그 잔이 자동(현 정읍시 칠보면)에 정착한 후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해 봄을 완성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노래인 '상춘곡'을 남겼다.

이 밖에도 시는 '상춘곡 테마동산' 옆에 수생물원을 만들어 수생식물과 동진강에 서식하는 어류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꽃양귀비·해바라기·과꽃·백일홍·맨드라미·접시꽃 등 7~9월에 개화하는 다양한 화초를 심어 꽃동산을 가꾸는 등 '동진강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야외수영장에는 물놀이 시설인 국내 유일의 '도레미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수영장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여과기를 증설, 수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 김상목 소장은 “상춘곡 테마동산은 불우현 정극인 선생이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지냈던 당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다”며 “많은 사람이 슬로시티의 한가로운 시골풍경의 맛을 한껏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s

순창군 장류 미생물 이용 명품 축산물 생산

양돈농가와 시험사육 추진

순창군이 장류(醬類) 미생물을 이용한 명품 축산화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메주에서 추출한 고초균(바실러스)을 가축사료 발효제로 개발·공급해 순창만의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한 시험사육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3개월간 인제면 심초리 한 양돈농가와 함께 돼지 140두를 4개 군으로 분류해 가축 시험사육을 실시한다.

1군은 EM(유용 미생물군)균을, 2군은 고초균을, 3군은 EM균과 고초

균을 혼합해 기존사료와 배합하여 먹고, 4군은 미생물을 넣지 않은 채로 사육해 각각의 발육상태와 도체등급 차이 등을 분석, 명품축산물 생산을 위한 모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류에서 추출한 고초균(바실러스)은 함양·다이어트 등 건강에 이로울 기능성 미생물로, 군에서 운영하는 발효 미생물 관리센터에서 지난 2009년 11월 균주특허를 받은 바 있다.

또 EM은 지난 2005년에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경중농가와 축산농가에 공급, 고추·블루베리 등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 등 가축의 육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상춘곡 테마동산'을 찾은 가족들이 시원스레 뿜어지는 분수를 바라보고 있다. <정읍시 제공>